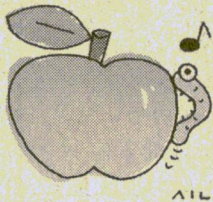




지평선

전남 장성에는 '한마음 공동체'라는 유기농 마을이 있다. 유기농은 농약과 비료 대신 천적과 퇴비를 사용하는 농사방법으로 근래 꽤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한마음 공동체는 농사방법에서 한 발 나아가서 유기농산물을 통해 도시와 농촌에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남상도 목사가 이 공동체 운동에 손을 댔을 때는 초라한 시작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농촌 살리기 운동의 모델이 될 정도다.

■ 한마음 공동체의 큰 줄기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60세대의 농가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활성화한 것은 유통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와 농촌간에 팔고 사는 것 이상의 연대감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광주 등 인근 도시 3,000여 세대가 이 공동체의 유기농업 회원 소비자가 됐다. 그들은 농산물을 살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개설한 생태 유치원에 30km나 되는 거리를 멀다 않고 아이들을 보내 농촌의 문화와 환경속에서 놀고 학습하게 한다.



유기농 공동체

■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 하라 타케시(原剛)교수팀이 이 한마음 공동체를 며칠간 누비며 조사 연구를 벌였다. 원래 저널리스트인 하라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의 객원논설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농업 및 환경문제 전문가이다. 하라 교수는 세계화의 바람으로 고전하는 일본 농업문제에

대한 탈출구로서 유기농 공동체 등 환경농업의 가능성에 무척 관심이 많다. 그는 한마음 공동체를 보고 "바로 이거다"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 하라 교수의 유기농 공동체를 보는 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농촌과 도시민의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둘째 WTO체제 등 세계화로부터 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며, 셋째 새와 벌레가 날아다니는 자연경관이라는 계량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 이후 유럽에서도 친환경 농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음공동체의 '실험'에서 농촌과 환경문제 해결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수중 논설위원



지평선

지난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던 국제 모터 쇼에서의 일이다. 이 쇼에 참가한 각 자동차 회사들은 제각기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 점심시간 중 자신의 회사를 찾은 취재진 및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 그 가운데서 단연 인기를 끈 것은 일본식이었다. 한 일본인 회사는 초밥, 참치회, 꼬치구이 등을 일본 차와 함께 내놓았는데, 적어도 10여분 이상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다. '고객'의 대부분은 서양인들이었다.

■ 중국 이탈리아 음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각국에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태국 음식이다. 태국 정부가 이런 자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앞으로 5년간 미국에 1,000개 등 세계 각국에 태국 음식점 3,000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름은 '글로벌 타이 레스토랑'으로, 패스트푸드점부터 고급 식당까지 3단계로 차별화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모두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 태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태



음식 관광

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관광객은 1,000만명 정도인데, 이중 상당수는 음식관광이라는 것이다. 또 태국 식료품 및 향신료 수출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의 노력이다. 태국은 1990년대부터 음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 요리사 양성을 위해 대규모 요리학원을 세우는 한편, 우수 인력은 외국 유학을 보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요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 농협이 김치수출에 본격 나섰다. 김치만으로 올해 1,000만달러를 벌어들일겠다는 것이다. 일본시장 확대는 물론,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며 중국 대만 등에서도 판촉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중 몇 명이 음식을 즐기러 왔고, 돌아가서도 못 잊어 현지 한국 음식점을 찾을 사람은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다. 음식은 이제 훌륭한 관광상품이다. /이상호 논설위원



“안심하고 드세요”

서영수기자

한갑수 농림부장관(가운데)이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왼쪽)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13일 경기 과천시 한 음식점에서 음식물찌꺼기 사료로 기른 한우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음식물사료 먹은 소 광우병 이상없다”

농림부 검사결과 발표

농림부는 음식물찌꺼기 사료를 먹인 소 3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13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나흘 동안 서울대 김대용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공동으로 경기 남양주시 김모씨의 소 3마리에 대해 임상관찰과 병리조직검사, 전자현미경 검사 등을 해보니 광우병 특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9일 김씨가 99년부터 음식물찌꺼기를 먹여 기른 이들 소를 사들였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제1944-23

“생명체 향후30년간 20% 소멸”

美과학자 70% “지구 45억년 역사상 최대위기”

【뉴욕UPI=연합】 미국의 과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앞으로 30년간 현존 동식물 종의 5분의 1이 소멸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가 뉴욕의 자연사박물관 의뢰로 저명한 과

학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과학자 10명중 7명은 지상의 생명체가 45억년 지구 역사상 최대의 절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엘런 퍼터 뉴욕 자연사박물관장은 『멸종 문제에 관한 한 사람들은 옛날

의 공룡을 떠올리지만 이번 설문 조사는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해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응한 과학자들은 대량 멸종이 환경재난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크게 침해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자연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터 박물관장은 『이들 과학자가 표명하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일반인들은 동식물의 멸종과 이것이 초래할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레産 농축산물 ‘밀물’… 農家 비상

‘10년내 無관세’ 자유무역협정 내달초 타결 전망

시민단체 “가격-質 경쟁력 뒤져… 협상 연기해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국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농민단체 및 농업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최종 협상안을 마련해 농민단체 등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한국과 칠레정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5차 협상에서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로 부문별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며 농업부문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공산품 수출은 유리해지지만 값싸고 질이 좋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칠레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농축산물 농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협상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민감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

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관세양허안은 배추 토마토 냉장닭고기 버섯 등에 대해서는 5년 안에, 키위 돼지고기 냉동마늘 건과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쇠고기 사과 배에 대해서는 WTO 뉴라운드 이후로 협상을 미루고 포도와 복숭아는 계절관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모두 1432개 품목 중 222개(15.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539개(37.7%)는 5년 안에, 나머지는 10년 후나 WTO 농산물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도록 했다.

칠레는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로 특히 포도 사과 배 키위 복숭아 등 국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과일들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 2400 t의 포도를 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한국측 농축산물 관세양허안

구분	품목수	주요 품목
즉시 관세철폐	222(15.5%)	가족사료
5년내 철폐	539(37.7%)	화훼 배추 토마토 냉장닭고기 칠면조 페이스트 포도주
10년내 철폐	293(20.5%)	키위 당근 감 밤 과일주스 건포도 냉동닭고기 돼지고기 냉동마늘
5년내 50%감축	22(1.5%)	냉동채소
10년내 50%감축	65(4.5%)	버섯류
계절관세나 할당관세(TRQ)	65(4.5%)	포도 복숭아(이상 계절관세) 분유 꿀 마늘 양파 단옥수수 대추 감귤 오렌지(이상TRQ)
WTO농산물협상 이후 협상	207(14.5%)	쇠고기 사과 배
제외	19(1.3%)	쌀
계	1432	

입하고 있는데 이중 95%가 칠레산이다. 칠레산 포도는 47%의 관세를 매겨 생산원가가 kg당 2300원(99년)이지만 무관세로 할 경우 1600원으로 낮아진다. 사과도 해상운임비 등을 포함해도 원가가 kg당 1053원에 불과해 출하가격은 1211원 정도라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산 사과(후지 중품)의 평균 가격은 1927원으로 칠레산보다 716원이나 비싸다.

또한 칠레산 축산물이 무관세로 수입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

기 등도 가격이 19~2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석 WTO협상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유럽연합과 멕시코, 캐나다와 칠레, 일본과 칠레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다른 나라들도 주요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하거나 WTO 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과실류 20가지와 축산물 등 30여가지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한|국|시|론|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국내의 국립 연구기관이 IMF로 외화가 부족하자 그동안 버리거나 퇴비로만 써왔던 음식물찌꺼기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찌꺼기를 소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수백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것이며, 그것을 이미 도축하여 국민이 먹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식이다. 지금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과 같은 초식동물이 동종의 동물성 사료만 먹으면 무조건 광우병에 걸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통념이다.

신문보도 따른 오해많아

원래 양이나 염소에는 스크래피(Scrapie) 프리온(Prion)라는 병이 1936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버려왔던 양의 내장과 뼈를 소사료의 단백질원으로 사료에 혼합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양의 내장에 있던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대 학장

스크래피가 소에 감염되어 발병했다는 얘기다.

소의 광우병(mad cow disease)은 이것이 학계에 정식 보고된 1986년 이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이다. 자연적으로는 소가 양을 잡아 먹을 일이 없었지만 인간의 편협한 과학적 지식 때문에 소가 양을 잡아먹은 결과가 돼 스크래피가 옮겨가게 된 것이다. 또 소가 자기와 동종인 소의 육골분을 먹었다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우병에 감염되어있는 소의 육골분을 먹어야만 광우병이 발생한다.

일찍이 양모산업이 발달했던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떼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양에서는 스크래피라는 병이 발생하지만 소에서 광우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유럽의 소에서는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는 것일까.

광우병, 잘못된 통념들

첫째,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내장을 분쇄하여 사료에 섞어서 많은 소들에게 골고루 먹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래 병원체는 일정한 숙주(사람이나 동물)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병원체가 다른 숙주(소)에 적응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치명적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차츰 그 병원체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인 숙주가 절멸되면 자기자손도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 탈 치명적인 병원체로 유전적 진화를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막연히 음식물 찌꺼기 사료와 광우병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많다.

스크래피 프리온은 매우 신비한 병원체이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균들은 핵을 갖고 있어서 핵분열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분열한다. 그러나 프리온은 아무런 핵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단백질인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하고 마침내 세포를 파괴한다. 그 과정은 매우 긴 시간동안에 이루어진다.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는 원래 프리온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런데 스크래피 프리온 단백질이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들어오면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스크래피 프리온 단백질로 변형시키고, 이 변형된 단백질은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접촉 통해선 감염안돼

프리온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기 전염이나 접촉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거의 안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에서 추출한 혈장이나 젤라틴같은 물질들이 화장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인간 피부는 각질층으로 덮혀 있어 프리온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500정도인 물질은 각질층이 통과시키지만 1000정도가 되면 통과하기 힘들다. 그런데 스크래피 프리온 같은 단백질은 3만3000~3만5000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피부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염된 소를 먹지만 않는다면 광우병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평선

유엔인구기금(UNFPA)이 헤이그 세계인구포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에 지구상 인류의 숫자는 60억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우리나라 땅에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한 사람의 생활공간이 5평정도, 즉 4m 간격으로 줄을 세워야 한다. 1968년 폴 에릭은 「인구폭탄」이란 책을 통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21세기에는 식량과 자원뿐 아니라 환경까지 파괴해버릴 다탄두(多彈頭) 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 19세기말 세계인구는 18억명이었다. 지난 100년동안 3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87년 50억명이던 것이 불과 12년사이에 10억명이 늘어났다. 인구폭탄이란 허구가 아니다.

세계인구 60억

통계를 더 심각하게 분석해본다면 8,500만, 즉 독일 인구 정도가 매년 지구상에 늘어나고 있다. 60년대 녹색혁명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맬서스의 인구재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21세기의 인구문제는 단순한 식량문제가 아니다. 소비문화가 초래할 인구의 도시이동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가 벌써부터 위험수위로 올라서고 있다. 더구나 증가하는 인구의 98%이상이 개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의 경고대로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촉진될 경우 기상이변으로 야기될 인구이동이 지구를 불안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선진국은 걱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구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산업화가 되면서 고용문제가 별로 없었고, 노령인구문제도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살기엔 4,600만명이란 과다한 인구다. 매년 44만명이 증가, 마산만한 도시가 늘어나는 셈이다. 더구나 인구의 대도시집중은 세계적이다. 우리는 중국의 인구문제를 걱정하지만 중국의 국토는 우리의 100배다. 인구문제에 관한한 우리 코도 석자는 된다.

/김수중 논설위원

萬物相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소(牛)의 숫자는 약 13억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대륙별로 따지면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2억2000만)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이 4억7000만 마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억 마리 정도가 방목되고 있는 남미 대륙이다.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대륙엔 1억6000만 마리가, 그리고 광우병으로 시골벽적인 유럽지역엔 82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 소가 인류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근 광우병 발생과 함께 많은 환경보호론자들이 소의 대량사육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3억 마리를 무게로 따지면 세계 60억 인구 전체 몸무게의 3배에 해당해 이들이 발굽소리를 울리며 초원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아마존 지역 우림(雨林)에서 보듯이 거대한 열대 삼림의 무차별 파괴다. 남미와 중미 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 사육하는 데 1800m²의 우림이 소실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지구 땅덩어리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오늘날 소의 방목을 위한 풀밭으로 이용되고 있다니 ‘우공’의 세력이 어느 만큼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 곡물과 에너지, 그리고 물소비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끔찍하다.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목축업자들은 한 가족이 1년간 쓰는 양의 물을 소비하고, 곡물은 약 7kg이 들어간다고 한다. 1년간 가축 사료용으로 쓰는 곡물의 양이 자그마치 6억 t에 이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소 사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 독일정부는 국제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북한에 쇠고기를 ‘선물’할 모양이다. 우리 정부도 안전만 검증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많은 소(20만 마리)에 대한 광우병 검사가 과연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철저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자기들은 안먹으면서 남주는 것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다.

아침을 열며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럽의 광우병 공포 때문에 쇠고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상황이다. 태국에서도 광우병 환자가 나타났으니 한국에도 곧 발생할 것이라고 수선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유럽 내륙으로 퍼졌고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으로 퍼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 수선이라 고만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판국에 유럽에서 광우병 우려 때문에 도살되는 쇠고기를 북한이 지원받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독일이 곧 지원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거양득’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국가간 불평등이 극심하기만 한 세계의 양 극단에서 협력 아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는데, 단지 ‘우려’만으로 소가 도살되고 또 안전하다고 판명된 고기마저 창고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은 고기가 기아 인구에 지원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시작되어 스위스로 또 어느 나라로 확대될 지 모를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은 유럽의 축산업자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고, 광우병 공포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당장 심각한 북한의 식량문제를 완화할 수 있

을 것이다.

어찌보면 지금까지 후진국의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도 모른다. 공해문제 때문에 폐기된 노후한 공업시설과 차량들이 제3세계의 거리를 메우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원자력 폐기물이 단지 얼마간의 원조와 합

‘쇠고기’ 결국 보내나

계 어느 후진국의 앞 바다에 묻히곤 했던 것이다. 세계의 이 불공정한,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인 학자들과 비정부기구(NGO)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오히려 세계는 더욱 비정한 ‘세계화’의 흐름에 맹렬한 속도로 휩싸이고 있다.

도덕성 논의 피할수 없어

그러나 무서운 병이 발생할지 모를 식품의 원조는 너무도 명백한 도덕성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북한과 독일 간의 쇠고기 지원 문제가 불거지자, 유럽연합(EU)은 광우병 우려로 판매되지 않는 고기를 원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유럽사회도 이에 대한 윤리논쟁으로 시끄러워졌다. 이에 대해 독일과 북한은 광우병 검사를 마친 쇠고

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했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광우병 위험이 없는 양질의 고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 거론 자체를 자체해 왔던 우리 정부도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광우병의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는 확증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는 꺼려 소비되지 않는 고기가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결말 지워져도 괜찮은 일인가.

시민단체 적극 나서기를

이 미묘한 상황에 대하여 유럽에서도 논쟁만이 있을 뿐 NGO의 책임있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발언권이 높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기만 하다. 적어도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광우병 위험을 무릅쓰면서

쇠고기 지원요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형태의 식량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쇠고기 요청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정부에게, 북한이 쇠고기 지원 요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차원의 식량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것도, 우리 시민단체의 몫이다. 세계 NGO들의 연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단순한 윤리논쟁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여 내야 할 것이다.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인구를 구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식 인권’의 관념과, 후진국의 인권을 경시하는 유럽의 이중적인 ‘인권의 보편성’ 관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가해야 할 것이다.

지평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를 먹어도 쇠고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국내 축산업자들이 고전하고 있다. 광우병 때문 이라지만, 그렇다면 이 파동이 사라진 후에는 국내 쇠고기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축산업계를 위협할 더 무서운 요인이 대기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그것이다.

■ 쇠고기 국내 자급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쇠고기 소비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쇠고기 자급률은 97년 62.9%, 98년 75.4%, 99년 61.1%, 지난해 53.1%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산 쇠고기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자급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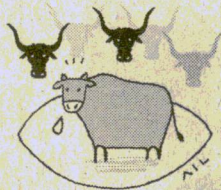
■ 일본은 91년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산 소인 '와규(和牛)'가 시장 점유율 35%를 굳세게 지키고 있다. 94년 말 일본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농림수산부

쇠고기 개방

관계자는 수입품에 대항 할 수 있는 무기는 '고품질화'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별로 특장 있는 고기를 만드는 차별화가 결국 품질개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는 품질에 따라 총 15단계로 구분하고, 최상급은 다른 품종에 비해 최고 1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난다.

■ 일본에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쇠고기 산지가 있고, 그 곳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된다. 이런 지역 브랜드가 150개 정도에 이른다. 이 같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

하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우 전문가들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이들은 20일 동안 일본 축산농가에 머물면서 일본 축산업의 모든 것을 직접 봤다고 한다.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연 일본의 예에서 보듯, 외국산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맛과 품질이다. 방문단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상호 논설위원





‘식탁 테러’ 새 위협

광우병·구제역등 바이오침략에 전세계 노출

“식탁을 사수하라.”

광우병 등 가축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농산물 테러’가 국가 안보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바이오 침략’의 실체는 물론 개념조차 불명확하지만, 그 파급 속도와 피해 규모가 핵 공격을 능가할 정도로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먹이사슬을 노린 생물학 공격은 ‘빈자(貧者)의 핵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방어책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국의 군사전문 잡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최근 ‘식탁 테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미국 등 강대국들이 ‘식량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확산:위협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동식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탄저병균 등 생물학 무기에 관한 장(章)을 신설했다. 보고서는 “적국의 생물학 무기는 손쉽게 미국 국경 내로 반입돼 식량공급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서 “군 부대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들이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생물학 공격 등 테러 대책을 위해 예산규모를 1998년 6억4,000만 달러에서 올해 15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미국은 특히 가축들을 통한 병원균 침입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세계 최대 축산국이기도 한 미국의 농가들은 대부분 1만두 이상의 대규모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균에 노출될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

저비용 엄청난 전파력

‘약소국의 핵폭탄’ 불러

펜타곤 예산 대폭증액

인간먹이사슬 사수 총력

고 있다. 플로이드 혼 미 농무부(USDA) 질병통제 담당 국장은 최근 상·하원 합동 청문회에서 “미국 축산 농가는 제 3세계 국가들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한 생물학 무기로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얼굴 없는 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세균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부터 3억 2,000만 달러를 투입,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천연두는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질병이나 20여년 전에 사라졌

다. 미국 정부는 북한 이란 리비아 등 이른바 ‘강패 국가들(Rogue States)’이 천연두 공격을 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가축 전염병 등 생물학 공격에 미국이 벌벌 떠는 것은 그 경제적 파괴력과 사회적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가축의 병균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영국이 1980년 이래 광우병 파동으로 1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데 이어 이제 유럽 전역이 쇠고기 공포에 휩싸여 있다. 1997년 구제역이 대만을 덮쳐 돼지 380만 마리가 도살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과 일본, 동남아 각국을 덮쳐 35만 마리가 도살됐다. 미국은 1983년 가금류에 발생한 조류독감을 제거하기 위해 6,3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가축 전염병의 70%가 사람도 감염시켜 인명 피해를

동반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에볼라 바이러스, 광우병 등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졌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 5년간 구제역으로 100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백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과 경련 등을 일으키며 숨졌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병원체를 일일이 발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하물은 5% 밖에 검역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엄격한 검역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출국이 이를 무역장벽으로 인식해 마찰을 빚기 일쑤다.

가축 전염병은 저비용에 특별한 기술 없이 전파가 가능해 1차 대전 이후 효과적인 테러 수단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가 테러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제시된

■역대 바이오 테러 사례

발 생	주동세력	내 용
1997년 4월, 미 워싱턴	반유대인세력	홀로코스트 지원 반대 탄저균 공격위협
1992년 5월, 미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애국위원회	지역 의원들 생물학 무기로 암살 시도
1990년 4월~95년3월, 일본	음진리교	탄저균 배양 시도,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
1980년대 중반, 스리랑카	타밀 반군	생물학 무기로 농작물 공격위협
1984년 8월, 미 오리건주	라즈나쉬 종교집단	751명 살모넬라균에 중독
1984년10월, 프랑스 파리	적군파	프랑스 경찰, 식중독균인 보툴리누스균 발견
1970년11월, 미 메릴랜드주	웨더맨 조직	수돗물 오염시키기 위해 생물학무기 절도기도
1950년대, 케냐	마우 마우	가축 살상 위해 독곡물 사용

■주요 바이오 테러 무기

병원체	잠복기간	증 상
탄저균	1~ 5일	고열, 피로감, 호흡곤란, 구토
브루셀로시스	5~60일	고열, 오한
에볼라 바이러스	4~16일	고열, 호흡곤란, 정신착란
페스트	2~ 3일	고열, 오한, 두통, 정신착란
야토병	2~10일	고열, 신경쇠약, 체중감소
천연두	10~14일	고열, 두통, 구토 등
보툴리누스	1~ 5일	정신착란, 전신 마비, 시력상실
리신	2시간	복통, 구토, 정신착란

적은 없다. 일본 방위청은 지난해 구제역에 대해 “특정 국가가 쥔 등 사료의 유통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섞었을지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으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한 바이오 테러에 대해 선진국들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뇌염

바이러스로 7명이 숨지자 미국 언론과 정보당국은 테러설을 제기했으나, 결국 아프리카 등의 조류에서 발생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부 장관은 바이오 공격에 대한 우려를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슈퍼파워의 패러독스’라고 불렀다.

/이동준기자 dilee@hk.co.kr